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

1. 발행자명	현대카드(주)		
2. 외부검토기관	NICE신용평가	아웃소싱 기관	해당사항 없음
3. 작성일자 ^주	2024.05.27.	현장검증 일자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주: 작성일자는 외부검토기관의 평가일자임

4. 외부검토 요약

NICE신용평가(주)는 2023년 6월 9일 현대카드(주)(이하 '회사')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제874-1, 2, 3, 4회에 대하여 대한민국 환경부·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적합여부에 대한 사후 외부검토를 수행하였다.

회사는 녹색경제활동인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기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으며, 해당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배분완료하여 사후(최종)보고를 실시하였다. 회사의 사후보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금이 배분된 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적합하며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자금배분이 완료된 점, 자금 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각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제874-1, 2, 3, 4회에 대해 [적합] 으로 평가한다.

I. 발행내역

종목명	제874-1회	제874-2회	제874-3회	제874-4회
채권 표준코드	KR6065901D60	KR6065902D69	KR6065903D68	KR6065904D67
발행 일자	2023.06.09			
발행 금액	500억원	500억원	100억원	1,400억원
만기 일자	2026.06.09	2027.06.09	2028.06.08	2028.06.09
발행 금리	4.227%	4.332%	4.435%	4.435%

II. 자금배분 보고에 대한 검토

1. 지원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회사는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를 제공하기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으며,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자금배분을 완료하였다. 자금이 배분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환경부가 공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한 프로젝트로 판단된다.

프로젝트명	분야	세부내용	배분현황	
			배분금액	배분비중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 (신용카드 판매)	금융서비스	전기 및 수소자동차 금융서비스 제공	2,500억원	100.0%
합계			2,500억원	100.0%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

프로젝트명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 분야: 다. 수송 경제활동: (2)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친환경차량인 전기 및 수소차량에 대한 할부금융 제공		
프로젝트 목적 및 개요			
총 사업비	2,500억원	자금조달 비율 (투입금액/총사업비)	100%
본 채권 투입금액	2,500억원		
집행(자금배분)금액	신용카드 판매	집행비율 (집행금액/투입금액)	100% (전액배분 완료)
	2,500억원		
자금배분 완료일	2023.09.27		
신규/ 차환	신규 2,500억원	비율 (신규 투자금액/자금조달금액)	100%
착공, 완공 및 생산일자	착공일: -	준공일(예정) : -	생산일(예정): -
프로젝트 소재지(국가, 위치)	국내 사업장 전체		

2. 프로젝트 상세 내용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

회사는 2023년 6월 9일 친환경차량에 대한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를 제공하기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주)의 전기차 6,074대 및 수소차 266대에 대해 약 2,500억원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무공해 차량을 도입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분류체계 내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공해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에 따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분류되며, 회사는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주)의 아이오닉5, EV6, 넥쏘 등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였음을 제시하였다.

| 표 | 친환경차량 대상 금융서비스 지원 내역

[단위: 건, 억원]

모델명	제조사	구분	취급건수	취급액
EV6	기아(주)	전기	895	371
EV9	기아(주)	전기	861	499
니로 EV	기아(주)	전기	74	24
니로플러스	기아(주)	전기	108	30
봉고 3EV	기아(주)	전기	216	56
아이오닉5	현대자동차(주)	전기	1,227	473
아이오닉6	현대자동차(주)	전기	530	217
제네시스 G80 EV	현대자동차(주)	전기	31	22
제네시스 GV60 EV	현대자동차(주)	전기	184	104
제네시스 GV70 EV	현대자동차(주)	전기	216	135
코나 SX2	현대자동차(주)	전기	330	117
포터 EV	현대자동차(주)	전기	1,402	362
넥쏘	현대자동차(주)	수소	266	90
합 계			6,340	2,500

자료: 회사 제공자료

III. 환경영향 보고에 대한 검토

당사는 회사가 제시한 사후(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환경개선 효과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본 녹색채권의 조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개선효과는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회사는 2023년 6~9월 전기 및 수소차 6,340대에 대해 총 2,500억원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전기차의 경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전력생산 및 자동차 제조 단계에서만 발생할 뿐 주행시 배출이 없어 친환경차 공급 확대를 통해 초미세먼지 및 CO₂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규 전기차량 베이스라인 선정프로그램(2023.08)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차량의 베이스라인 차량(동급모델)을 선정하였으며, 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친환경차량의 취급내역을 감안할 때 동급모델 CO₂ 배출량 대비 연간 약 11,855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의 환경개선효과

[단위: tCO₂eq]

친환경차 모델명	동급모델	동급모델 배출량 ^{주2}	취급건수	연간 감축량 ^{주3}
EV6	투싼 디젤 2.0	131	895	1,562
EV9	싼타페 디젤 2.2	146	861	1,675
니로 EV	코나 디젤 1.6	105	74	104
니로플러스	코나 디젤 1.6	105	108	151
붕고 3EV	붕고 1톤 장축슈퍼캡 디젤	195	216	561
아이오닉 5	아반떼 디젤 1.6	104	1,227	1,700
아이오닉 6	아반떼 디젤 1.6	104	530	734
제네시스 G80 EV	G80 디젤 2.2	130	31	54
제네시스 GV60 EV	GV70 디젤 2.2	140	184	343
제네시스 GV70 EV	GV70 디젤 2.2	140	216	403
코나 SX2	코나 디젤 1.6	105	330	462
포터 EV	포터 2.5 장축슈퍼캡 디젤	195	1,402	3,642
넥쏘	투싼 디젤 2.0	131	266	464
합계			6,340	11,855

주 1: 친환경차는 주행 중 배출량이 없음을 가정

주 2: 동급모델 CO₂ 배출량(gCO₂eq/km)은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표시제도(2023.12) 기준 대체가능차량 중 최저 CO₂ 배출량 참고

주 3: 연간 CO₂ 감축량(tCO₂eq)=(동급모델 CO₂ 배출량 - 친환경차 CO₂ 배출량) × 연간 평균 주행거리(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기준 1대당 연평균 주행거리 13,323km) × 모델별 취급건수 ÷ 1,000,000

자료: 회사 제시자료 및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표시제도(2023.12)

IV.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최종 확인

프로젝트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문	6대 환경목표	분야	경제활동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 (신용카드 판매)	녹색	1. 온실가스 감축	다. 수송	(2) 무공해 차량· 철도차량·건설기계· 농업기계·선박·항공 기·자전거 도입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최종(종합) 적합여부		적합	
	부문	녹색부문		전환부문
		2,500억원		-
	총계	100%, 2,500억원		
현장방문(필요시)	해당없음			
주요의견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신용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회사의 자동차금융의 경우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주)의 Captive 신용카드사로서, 차량에 대한 신차결제 대금을 신용카드 판매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2023년 6~9월 전기 및 수소차 6,340대에 대해 총 2,500억원의 금융서비스 자금을 투입하였다. 친환경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에 따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분류되며, 회사는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주)의 아이오닉5, EV6 등 전기 및 수소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회사가 자금을 투입한 프로젝트는 무공해 차량을 도입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분류체계 내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활동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사의 프로젝트는 별도의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제시한 배제 및 보호기준 확인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가 해당되는 경제활동의 환경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환경목표 별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확인	본 외부검토기관은 현대카드(주)가 발행한 녹색채권의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부가 공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상의 경제활동 각 기준(활동, 인정, 배제, 보호기준)이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5. 최종 결과 및 종합 검토의견

가. 판단 확인 대상

당사는 현대카드(주)에서 의뢰한 "친환경차량 대상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에 대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적합성 부합 여부 판단 확인을 회사 제시자료 및 관련자료, 기타 문서 등을 기반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나. 판단 기준 및 절차

당사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기반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적합성평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개선효과 산정에 적용된 데이터 및 인자는 객관적 자료 등에 입각하여 적정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지침 등을 준용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속하는 경제활동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12)
-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12)
-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 ▶ NICE신용평가 ESG인증평가 방법론(2023)

다. 판단 확인의 독립성

당사는 외부검토기관으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 전담기관으로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발행기업 또는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편향된 시각으로 판단 확인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라. 판단확인 한계

당사는 발행기업에서 제시한 적합성판단 요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이외에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각종 공시/공개자료, 산업자료 등을 검토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원에 대해 정확성,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고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검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적합성 판단상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기준 등에 부합하는 충실한 판단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오류, 누락, 허위진술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음을 한계로 제시합니다.

마. 판단 확인 결과 및 종합의견

당사는 발행기업의 사후(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액 배분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사가 자금을 투입한 “친환경차량 대상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는 활동기준/인정기준/배제기준/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당사 ESG인증 평가방법론, UN SDGs에 [적합] 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회사는 “친환경차량 대상 금융서비스(신용카드 판매)”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 및 수소차 6,340대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지원한 전체 차량은 동급모델의 CO₂ 배출량과 비교하여 연간 약 11,855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전제 및 유의사항]

1. 회사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경영진은 대한민국 환경부·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 따라 관리체계를 작성 및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환경부·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 의거하여 관련사업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관련 사업에 자금을 투입, 집행, 관리하며, 집행된 자금 및 관련 효과에 대해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ESG 외부 인증평가기관의 자격

NICE신용평가(주)는 1986년 설립되어, 1987년 회사채발행실무협의회 무보증회사채 등급평정 전문기관 자격을 인정받았고, 2001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평가업무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금융감독원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ECAI,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을 지정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오랜기간 신용평가부문에서 축적된 공신력을 기반으로 2020년 현행 신용평가업무와 다른 『부수업무』 영역으로 인정받아 본건 ESG 인증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즉, ESG 인증평가 업무는 기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업무와 다른 『부수업무』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3. 외부검토의 목적 및 검토범위

본 외부검토의 목적은 NICE신용평가(주)의 ESG 인증 평가방법론, 대한민국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외부검토의 범위는 첨부된 회사의 『한국형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과 관련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환경부·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 『적합』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파악입니다.

4. ESG 인증평가 적용방법론

본건 인증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론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발행사와 투자자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방법론이 개별 평가과정에서 고려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정성적 판단의 특징, 제출자료의 신뢰성 검증의 제약 등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예측과 반영은 대외 여건 등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정확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NICE신용평가(주)가 수행하는 ESG 인증평가는 ESG 채권 발행사의 환경(기후변화 포함)/사회적가치(사회적책임) 개선 효과 등의 정도나 지속성 등을 보장 또는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평가대상 프로젝트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 및 영향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사가 제시하는 근거자료, 면담(인터뷰) 및 컨퍼런스 콜 내용,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 분석 및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ESG 프로젝트의 환경 및/또는 사회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해 발행사 또는 발행사 지정 제3자가 완전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ESG 인증 평가방법론』은 NICE신용평가(주) 웹사이트(www.nicerating.com) -

리서치 - ESG 평가) 부분에 공시(공개)되어 있습니다.

5. 독립성 준수 및 이해상충 방지

NICE신용평가(주)는 본 인증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Code of Conduct에 의거한 독립성 준수, 내부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 관리체계의 한계

관리체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회사의 관리체계가 항상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 부합되게 운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ESG 발행사(Issuer) 평가와의 구분

ESG 채권(Issue) 인증평가는 ESG 발행사(Issuer) 평가와 다릅니다. 발행사 자체에 대한 ESG 관점의 인증평가가 아니라, 발행대상 채권(특수목적채권)에 대해 특정된 Issue(채권) 평가의 특성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발행사에 대한 ESG 등급(예 : ESG 리서치 전문기관의 등급)과 당사가 평가하는 발행 대상 채권의 ESG 인증등급 또는 인증의견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ESG 인증평가는 ESG 채권 등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입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ESG 인증평가의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공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문서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는 ESG 인증 평가 대상의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ESG 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ESG 인증평가지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인증등급 또는 인증의견과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평가결과와 발간물은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및 정부정책의 변동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와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발행주체의 ESG 채권 등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평가결과와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사(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전문가집단)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특히, 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재 또는 첨부되어서는 안되며, NICE신용평가(주)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